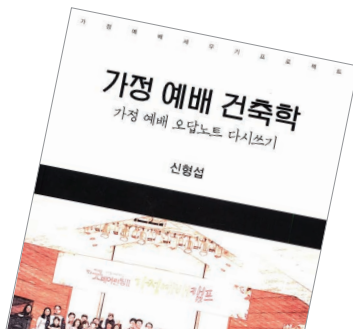




오늘의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_마태복음 4:19-20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2 신년 특집 | 4-6 이재철 목사 사경회 지상중계 | 12-13 사임교역자 인사 / 목회칼럼 |
| 3 교회 소식 | 7-11 교육과정 후기 | 14-15 임직자 소개 |



주님의 빛 아래

11월 28일 오래 미루어졌던 항존직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해 모두 함께 찍은 사진 속, 스크린이 하얗게 비워져 있습니다. 원래 아무 것도 없었을 수도 있고, 무엇인가 있었지만 강력한 카메라 플래시 불빛에 지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빈 스크린은 마치 주님의 빛에 비추어진 우리 자신의 은유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적혀 있든, 주님의 빛 아래에서는 모두 지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을 비우고, 세상의 모든 헛된 그림자를 지우고, 그 위에 주님의 그림이 새롭게 새겨지도록 하는 일, 이날 안수를 받고 주님의 고된 십자가 길 동행하시게 될 서른여덟 분에게 주어진 벅찬 소명이겠습니다.

함글함글

시작과 함께 마무리를

신년특집으로 현직 아빠이며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많은 함글함글 기자가 쓴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와 신앙교육에 대한 좋은 책에서 명문장을 뽑아 소개하는 ‘책속의 명문장’을 연재합니다.

함글함글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
아이에게 배우는 집사 아빠

시작하면 생기는 마음

TV를 보고 있는데 한 NGO 단체의 광고가 나왔다. 하얀색 곰이 나오는 광고였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위기에 처한 북극곰 이야기였다. 광고를 보고 있던 둘째가 갑자기 북극곰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다.

정기후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북극곰을 돕는데 사용하도록 보내야 한다고 하니 자기 통장에 지금 얼마 있냐고 물으며 자기 통장에서 조금씩 보내주면 되지 않겠냐고 한다. 광고를 보고 잠깐 느끼는 감정인지 진짜 마음이 있는 건지 며칠을 두고 보기로 했다.

며칠이 지나 둘째가 다시 북극곰 이야기를 꺼냈다.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듯해서 알겠다고 하고 다음 날 오전에 정기후원 신청을 했다. 얼마 후 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이름과 이체 방법 등을 확인했다. 이체는 내 카드로 하지만 후원자 이름은 아이 이름으로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후원을 시작하자 나 역시 예전보다 북극곰에 대해 관심이 더 생기게 되었고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라는 말이 더 자주 들리는 듯 하다.

마음이 있어야 도울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의 마음으로 시작된 도움으로 인해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마음이 있어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시작하니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맘때가 되면 교육부서 교역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있다. “전도사님~ 저 내년에는 교사 좀 쉬려구요”라는 말이다. 교사 하실만한 분들을 찾아 섭외(?)를 시작한다. 자격이 안 된다는 분도 계시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분도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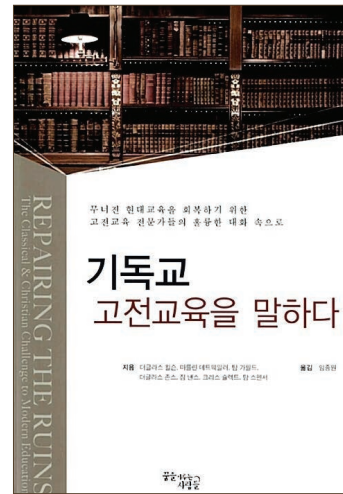
예전부터 “되어간다”라는 말을 좋아했다. 결혼을 한 남자와 여자는 부부가 된 것일까? 살아가면서 부부가 되어가는 것이다.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된 것일까?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이좋은 부부가 아니야”,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야”가 아니라 지금의 모습에 조금은 덜 실망하며, 좀 더 사이좋은 부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도 마찬가지 아닐까 한다. “교사가 되어간다”고 생각하면 처음 시작도 조금은 쉬울지도 모른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좀 더 노력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 이름으로 북극곰을 돕는 정기후원을 시작하니까 마음이 생긴 것처럼 일단 시작하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로서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교사뿐 아니라 교회 안의 다른 사역들도 마찬가지이다. 때로는 내 마음이 이끌려 시작한 사역보다는 억지로 시작한 사역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다. 나 역시 스스로 <함글함글>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유아숲, 유소년숲, 청소년숲, 청년숲마다 1명씩 기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유소년숲 교사인 내가 어찌다가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이렇게 매호마다 어떤 글로 <함글함글>의 2면을 채울까 마음을 쓰게 되었다. 아이의 북극곰 후원으로 마음과 실천에 대해 생각하면서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되던지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역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의교회 성도들도 교사, 겨자씨 인도자로, 성가대원으로, <함글함글> 기자로, 여러 자리의 사역자로, 지나가는 말로라도 섭외(?)된다면 억지로라도 그 사역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면 필요와 능력 또한 채워 주실 것이라 믿으며 말이다.

책 속의 명문장

기독교 고전 교육을 말하다



더글라스 월슨 외, 임종원 옮김,
꿈을이루는사람들, 2013

-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친다. 단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다. 그러한 경건한 경외심은 모든 교육의 근본이며, 이 근본은 그에 따라 온갖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다.
- 교육이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동시에 다른 모든 우상들과 싸우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진리에 순종하여 그분을 섬기면서 다른 모든 거짓말과 맞서 싸우게 된다.
- 다른 사람들을 책임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높은 기준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뜻이다... 가르치는 것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참 명예로운 직업이다. 그러므로 각종 기준이 당연히 높아야 한다.
- 우리가 그리스도인 교육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 수업에 임할 때마다, 12년 동안 날마다 하루 종일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무신론자처럼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식으로 주입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지식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지 않으신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교육을 어떤 식으로 적절히 부르든 간에, 그 교육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주권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배제된 곳에서는 아무런 교육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다면, 지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무이며, 여기에는 우리 언어, 문화, 민족의 역사에 관한 공부도 당연히 포함된다.

- 교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념비적인 역사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물론, 가장 중심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둘러싼 시기이다.
-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말씀의 백성이며, 결과적으로 언어를 잘 구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 우리는 인간적으로 가능한 한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해하는 데서 얼마든지 자라갈 수 있다.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증학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고양시킨다.
- 가정은 경건한 자녀를 가져서, 번식하고, 온 땅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기관이었다. 이것들은 굉장히 중대한 목적이며, 모두 광범위한 지식과 훈련이 필요한 목표들이다.
-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대 간의 영적인 훈련과 축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부모들은 마땅히 자기 아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으로 이끌어야 한다.
- 학교는, 심지어 아무리 좋은 기독교 학교들이라도, 학생들의 도덕적인 선택을 억지로 가르칠 수 없다. 오직 부모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교회 소식

2020년 임직식



2020년 임직식이 11월 28일 3부 예배 때 진행되었다. 보통 임직식은 6월 하순 창립기념일 예배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2020년 전 세계에 팬데믹 상황을 가져온 코로나19에 따라 임직자 선거가 지연되면서 임직식도 지연된 바 있다. 이날 장로 2명, 안수집사 18명, 권사 18명이 소정의 피택자 교육 과정을 마치고 항존직으로 부름받았다.

이날 안수를 받은 임직자는 다음과 같다.(생년월일 순, 명단 및 소감 14~15면)

장로 (2명)

변춘석 임익수

안수집사 (18명)

류승태 고승철 박창두 손준웅 박경준 김관민 서병운 이광우 이정혁 송재승 박용좌 이성호 여인모 조상철 조세종 이정우 윤승진 박재민

권사 (18명)

한신혜 김미선 고명숙 육영주 이민숙 강경희 강정임 김숙자 김영희 이금옥 김미성 방혜령 이왕희 권진영 이춘희 서재화 조은영 임미희

함줄함울

교회 소식

2022년 정책당회

2022년 표어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I”

2021년 10월 22일 2022년 교회의 정책을 논의하는 정책당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된 2022년 표어는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I”(롬10:15, 고전9:16, 행1:8)으로, 목회의 중점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핵심을 교육과 선교로 보고, 가정 중심의 다음세대 교육과 가정 중심의 선교를 시행하는 것에 두었다.

가정 중심의 다음세대 교육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되고 가족이 신앙 교사가 되어야 다음 세대의 바른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로, 지난 4년간 가정이 다음세대 교육과 신앙 유산 상속의 중심이 됨에 초점을 맞추어 온 바 있다. 향후 4년간은 가정이 선교의 주체가 되고 가정이 선교의 현장이 됨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무게 중심은 선교에 두지만 다음 세대 교육 또한 균형을 이루며 진행할 예정이다.

가정 중심의 선교

가정이 신앙생활 모든 영역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기본 전제로, 가정에서

교회 소식

2021년 하반기 각종 교육과정 수료

아름다운 부모학교 제4기

11월 18일에는 크리스천 부모와 관련된 주제를 말씀을 바탕으로 깊이 묵상하고, 성경의 비전에 맞추어 부모된 우리의 세계관을 성찰하고 크리스천 부모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부모학교 제4기 수료가 있었다. 9월 30일부터 8주 과정으로 진행된 과정에서는 자녀의 신앙교사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참여하여 기독교부모로서의 마음과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가정예배학교 1기

11월 19일에는 주님의교회 가정예배학교 1기를 마쳤다. 10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주 동안 진행된 가정예배학교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형섭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가정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을 갖기를 사모하는 가정이 모여 각 가정에 맞는 가정예배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고 함께 나누었다.

마더파더와이즈 '회복' 편

11월 23일에는 말씀을 디딤돌 삼아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마더파더와이즈 '회복'편 9주간의 여정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였다. 9월 28일부터 시작된 마더파더와이즈 '회복'편은 고대 유대의 결혼 풍습을 통해 우리를 신부로 초청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담긴 의미를 알려주고, 자신의 참된 가치를 그 사랑 안에서 발견하도록 인도하는 과정이다. 마더파더와이즈 '회복'편에 참여한 주님의교회 가족들은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신부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였다.

세움학당 2기

11월 28일에는 4월 10일 ~ 6월 26일까지 상반기 과정, 10월 2일 ~ 11월 27일까지 하반기 과정으로 진행된 세움학당 2기 수료가 있었다. 상반기에는 기본과정으로 교사 세움 과정을, 하반기에는 심화과정으로 교사 영성 과정을 진행하였다. 특히 하반기 교사 영성 과정은 총회 교육자원부에서 실시하는 교사양육교재(교사 미션트립 - Teacher Mission Trip, T.M.T.)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함줄함울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가슴에 품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데 중심을 둔다. 단기적으로는 가정예배에서 선교기도에 동참하고, 단기선교(국내·외 아웃리치)를 가정 중심으로 진행하며, 국내·통일 선교와 국내·통일 선교역사 순례 역시 가정 중심으로 참여하도록 진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선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파송을 진행한다. 가정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각 공동체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선교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교회와 선교

교회에서는 교구별, 겨자씨별로, 교구 중심의 선교를 위해 이미 세워진 담당자를 적극 지원한다. 시니어 선교학교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구체화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통일선교, 국내 중심의 미자립·농어촌교회·비전교회·형제교회·번식교회, 전문인 선교에 대한 준비 및 역량을 강화한다.

함줄함울

교계 소식 | 이재철 목사
연동교회 사경회 지상 중계

말씀, 그리고 사색과 결단

연동교회(담임 김주용 목사)에서는 이재철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지난 11월 17~19일 3일간 ‘말씀, 그리고 사색과 결단’을 주제로 2021년 말씀 사경회를 열었다. <기독일보>에서 보도한 주요 기사를 인용 소개한다.

함글함글

첫째 날,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

이재철 목사는 사경회 첫 날인 17일,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은’(약 1:12~1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교회가 저마다 주장했다”며 “그런데 교회는 한 번도 새로워져 본 적이 없다. 이유는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모두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의 안일함에 안주해서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예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각 총회의 보고서를 종합한 기사를 보면 많은 교단 중에서도 6개 주요 교단인 예장통합, 예장합동, 기독교장로회, 고신, 감리회, 기독교성결교 등 이 6개 교단에만 지난 10년 동안 176만 명의 교인이 감소했는데, 작년 1년 한 해 동안 40만 명이 감소했다. 작년 2~3월부터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감소한 40만 명은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다. 10~20년 후에 한국에는 기독교가 존재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한국교회는 오래 전에 쇠퇴해 가는 유럽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회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 교회가 이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제 자신을 포함한 이 땅 목회자들의 책임”이라며 “목회자들이 이런 위기의 공범자라면 교인들은 동조자 내지 방관자이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렇게 쇠퇴하게 만든 이 잘못을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방법은 한 가지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며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가 광야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강림하시길 열망했다. 그런데 메시아가 강림할 것을 알고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을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갖 종교 권력을 누리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세례 요한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살았던 빈들,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다. 교회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사람들”이라며 “예루살렘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예수가 태어난 줄도 몰랐다. 광야의 목자들이 먼저 알고 가서 경배를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고 예물을 먼저 바친 사람들 또한 광야의 사람, 동방박사들이었다”고 했다.

이 목사는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교회 예배당은 마치 철옹성 요새와도 같다. 목사, 장로, 권사, 교인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며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세상이 비워지고 광야가 될 때, 교회가 광야가 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광야교회가 되는 것은 아웃사이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허례허식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인사이드의 자리를 버리고, 스스로 예루살렘 밖인 아웃사이드로 광야로 갔다”며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인사이드들의 논리로 하나님과 바르게 동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외양간 구유에서 아웃사이드로 태어나서 갈릴리 빈민촌 아웃사이드로 사셨다. 왕을 사칭한 대역 죄인으로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신 주님 또한 아웃사이드였음을 생각하면 아웃사이드가 아니면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인사이드인 사람, 인사이드가 되려는 사람에게서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자신의 기득권과 욕망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권력지향적이다. 물론, 종교 행위에는 열심이다. 그러나 종교심은 신앙심이 아니다. 인사이드의 열심 있는 종교심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며, 미신과도 같다. 그러므로 인사이드들은 세상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요한, 엘리야, 엘리사, 바울, 예수님처럼 아웃사이드가 될 때, 자신을 새롭게 할 수가 있다. 자신을 먼저 새롭게 할 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는 것”이라며 “광야교회, 아웃사이드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림자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훈련을 견뎌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유혹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당하면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은혜롭게 산다는 것은 거짓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해주는 모든 은사와 은혜는 오직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하나님은 돌아섰을 때 그림자도 보이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이라며 “그림자 없는 첫 열매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평생 그림자 없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교회는 가릴 것이 없어야 한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재정원장과 당회록을 공개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으면 교회가 타락할 확률은 그만큼 줄어든다. 광야교회, 아웃사이드 교회, 그림자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한 마디로 욕먹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광야의 소리는 인간의 욕심을 위해 왜곡되지 않는 날 것,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광야의 소리는 특히 싫은 소리”라고 했다.

아울러 “주님마저도 이 땅에서 욕을 먹었다. 십자가 죽음의 모욕을 당하셨지만, 세상을 새롭게 하셨다. 욕먹지 않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길은 없다”며 “그리고 버리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오늘 이후로 광야교회, 아웃사이드 교회, 그림자 없는 교회, 욕먹는 교회로의 행보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미래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했다.

둘째 날, 전통이란 이름의 우상

둘째 날인 18일에는 ‘전통이란 이름의 우상은?’(삼하6:1~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다. 그들은 그들을 이끄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대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날마다 목격했다”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 전개되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했다.



“장 칼뱅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번 교회가 개혁되었다고 멈추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이해집단으로 전락한다는 것”

이어 “38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모습은 변치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있는 불뱀을 모아서 물게 했고, 비로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유되게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장대 위에 뱀뱀을 다셨는가”라며 “땅에 있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이 뱀뱀을 보려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야 하고 그제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다. 땅에 있는 불뱀만 보면 원망 투성이지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뱀도 생명 없는 뱀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 믿음을 회복한 사람은 다 살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만 보고 살아가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안을 열어주기 위해 일회용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뱀뱀이었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회용 도구에 지나지 않는 뱀뱀을 버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갔다. 뱀뱀 자체가 신성한 성물이 된 것이다. 그들은 무려 700년 동안 (뱀뱀을) 숭배했다. 그러다 히스기야 왕 때에 비로소 뱀뱀을 파쇄했다. 700년 동안 뱀 조각에 불가한 뱀뱀을 경배하는 일을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이름의 우상으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에서 되돌아온 여호와의 법궤를 20년 동안 자신의 집에 안치하여 지켜온 아비나답의 집에서,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명으로 자신의 성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 무려 3만 명을 모집한 장면이 나온다.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 다윗이 얼마나 지성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사람이 메어 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메는 것과 관련해 2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하나는 반드시 고향 자손이 메어야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누구든지 임의로 법궤를 만지면 죽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 당시 아비나답의 손자 웃사와 아효가 법궤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물건 짚처럼 여기고 새 수레에 싣고 나온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법궤에 관한 명령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법궤에 관한 아비나답 집안 가문 사람이 지킨다는 전통이라는 우상이 끈고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우상의 전통 앞에 왕도 말을 하지 못했다. 당당하게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 아비나답 자손의 위세에 압도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궤의 권위를 누리던 웃사는 법궤를 실은 새 수레를 끌고가는 소가 뛰여 오르자 법궤를 붙들게 되었고, 진노하신 하나님이 치시자 목숨을 잃었다. 본문 8절에는 ‘다윗이 분하여 그 곳을 베레스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고 했다. 다윗은 무엇이 분했던 것인가”라며 “첫 번째는 법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는 엉뚱한 짓에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 분노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와 온 백성을 농락한 웃사에 대해 분노했을 것이다. 여기서 ‘베레스 웃사’는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 목사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전통이란 이름의 우상에는 먼저, ‘직분의 서열화·계급화·권력화’라는 전통의 우상”이라며 “장로교 교인 99%가 장로교회를 장 칼뱅이 세웠다고 생각한다. 장 칼뱅은 장로교회를 세운 적이 없다. 스위스에서 개혁을 하면서 자신이 이끄는 교회 이름을 ‘개혁교회’라고 불렀다.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왜곡된 교회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개혁하는 것에 교회의 방점을 찍었다”고 했다. 이어 “개혁의 통로로 장 칼뱅은 4개의 직분을 두었다. 첫째는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전을 집전하고, 교회를 이끄는 직분이다. 둘째는 교사로, 장 칼뱅의 개혁교회 교사는 신학을 반드시 전공한 사람으로, 박사 또는 교수로 불렸다”며 “셋째는 장로로, 목사와 함께 치리와 권징을 행하고, 목사를 지원하는 직분이다. 그러나 항존직이 아닌 1년 임기의 임시

직이었으며, 모든 장로는 1년 마다 신임을 받아야 했다. 넷째는 집사로, 제네바 시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과 복지시설, 교회에 봉사하는 직분이다. 이 4개의 직분으로 교황 1인체제의 독선과 오만에 맞서는 대의체제를 만든 것이다. 민주적인 대의체제로 모든 교인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 칼뱅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번 교회가 개혁되었다고 멈추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이해집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떤 직분도 서열화·계급화·권력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어떤 특정인도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장로교회가 140년 전 한국에 들어와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유교적 가부장 사회에 들어와 장로교회가 맞아 들어간 것이다. 바로 장로가 계급·서열이 된 것”이라며 “그래서 장로교회라는 이름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한국에 장로교회 교단이 약 300개가 된다고 한다. 장로교회 간판을 달아야 교인들이 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래 감리교와 침례교에는 장로가 없었다. 감리교는 속장과 권사밖에 없었다. 그런데 한국 감리교와 침례교에는 장로가 다 있다. 장로 없이는 한국에선 교회가 안 되는 것”이라며 “장로가 계급이 되니 서리집사 위에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와 장로가 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만인 제사장인데 계급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은연 중 혹은 공개적으로 왜 선거운동을 하는가. 선거운동을 해서 뽑히는 장로와 안수집사가 정말 예수가 말하는 종이 될 수 있는가”라며 “그럼에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계급·권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분이 있는 사람에게 이 직분을 줘야 한다. 직분의 서열화·계급화·권력화라는 전통이라는 이름의 우상이 한국교회를 압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 웃사와 아효를 보고 모두가 꿀 먹은 벼어리가 된 것처럼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이 문제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전통이라는 우상의 권위가 너무 막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목사는 “직분이 서열화·계급화·권력화 된 교회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며 “성경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목 박히시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은지 서열·계급·권력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일 높은 자가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 한국교회에 ‘섬긴다’는 말이 타락했다. 섬기지 않고 섬긴다고 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의 뜻은 일꾼, 하인이 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무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온 크고 강한 가지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제일 밑자리에 있다. 나무에 가장 늦게 나온 가지가 제일 위에 있는 좋은 자리에 있다.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자연이 아름다운 것”이라며 “강하고 큰 것들이 밑에서 디아코너스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분이 서열화·계급화·권력화 되는 전통의 우상을 깨부수고, 이제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코끝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셋째 날, 신앙적인 자녀교육

마지막 셋째 날의 주제는 ‘신앙적인 자녀교육은?’(삼상17:12~19)이었다. 이 목사는 “자녀교육이라고 하면 크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교회교육이며, 둘째는 가정교육, 셋째는 학교교육이다. 여기서 교회교육과 가정교육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했다. 이어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주일학교는 기로에 서 있다. 한국교회가 쇠퇴함과 맞물려 교회학교도 쇠퇴일로에 있다”며 “우리 세대는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몰락하는 것을 바라보는 증인이 될 수도 있고, 교회학교를 다시 부흥시키는 구원투수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계 소식 | 이재철 목사
연동교회 사경회 지상 중계

그는 “요즘 한국교회에서 왜 교회학교 아이들이 없어졌는가”라며 “교회학교 아이들은 옛날과 다르게 자발적으로 교회를 선택하지 못한다. 지금은 어느 교회가든지 동네 마을교회가 아니라 큰 지역교회이다. 아니면 서울 전체를 상대로 하는 교회들도 많다. 그러다보니 부모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타고 교회를 간다.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 교회를 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주일학교에 다닐 적정 연령 아이들의 부모 세대가 교회를 떠났다는 의미”라며 “주일학교를 다시 부흥시킬 방법은 하나로, 교회를 떠나간 30·40대를 돌아오게 하면 된다. 그렇다면 왜 30·40대가 교회를 떠났는가. 지금의 30·40대는 지성과 이성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 대해 모든 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세대들이다. 이 세대들이 있기에 미래가 새로워진다. 귀하고 보배 같은 세대”라고 덧붙였다.

또한 “30·40대가 볼 때, 교회가 교회다운지를 생각할 때, 아닌 것이다. 모든 기득권을 장악했던 가톨릭과 맞서 왜곡된 세상과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프로테스트(저항)한 사람들이 개신교를 세웠다. 세월이 흘러 개신교회들은 개교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21세기 민주적인 시대에 가장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이며 시대에 뒤떨어져 게토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데 주일예배 시간에는 장로님들만 기도한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인가? 젊은 이들이 볼 때 이런 이율배반(二律背反)이 없는 것”이라며 교회가 30·40대를 몰아내었던 모든 모순과 이율배반적인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젊은 이들이 인간에 의해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안에서 그들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해줘야 한다. 그렇게 젊은이들이 교회로 들어오면 아이들은 따라서 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교회학교 교사는 지원하면 된다. 훈련되지 않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며 “그러다 보니 재미 위주가 된다. 아이들은 현존하는 미래인데, 아이들이 바른 신앙을 하고, 미래의 신앙인으로 사회에 한 몫을 담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여력이 있는 교회는 교회학교를 전담하는 목사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정교육을 시키는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는 식탁이다. 밥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통해 부모의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심겨지고 부모의 신앙관이 아이들에게 신앙관이 되며, 부모의 인격이 아이의 인격에 스며들게 된다”고 했다. 이 목사는 “자녀들과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가르쳐주어야 하는 것은 공생의 본질을 가르쳐서 공생인이 될 수 있게, 자립이 무엇인지를 행하게 하면서 자립인이 되게 하는 것”이라며 “공생의 본질은 먼저, 법의 문제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요14:15)”이며, “우리는 다 다르다. 성격, 학력, 재산 정도 등 다 다르다. 이 이질적인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법”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고 ‘공생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또 “두 번째로 공생한다는 예절의 문제”라며 “공생하기 위한 타율적 장치가 법이라면 예절은 자율적인 규범이다. 나의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려면 예의를 갖춘 아이가 되게 해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 살길 원한다”고 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생은 물질의 문제”라며 “공생하면서 자신의 물질에 터치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공생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청지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의 주머니에 있는 돈의 일부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 맡기신 몫이다. 이러한 사람이 공생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마지막 네 번째로 공생은 마음의 문제”라며 “상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빈 터가 있어야 한다. 이기적

인 사람에게 공생이 불가능한 것은 자기만 아는 이기심이 가득차서 다른 사람을 품을 공간이 없는 것이다. 자신이 몇 사람을 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할 때 가족·혈연관계를 제외한 몇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가에 있다”고 했다.

그는 “공생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실생활에서 공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공생의 대전제가 자립이기 때문”이라며 “자립하지 않으면 공생을 못한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의 자식들이 자립할 것을 명령한다. 레위기 19장 9~10절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법칙이며, 신명기 23장 24~25절은 은혜를 받는 자의 법칙이다. 한끼를 해결하지 못할 때 남의 밭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립하기 위함이다. 평생을 남에게 빌 붙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원주민들이 농사했던 농산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먹고 난 이후 광야 하늘에서 떨어졌던 만나가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은 무위도식(無爲徒食)의 땅이 아니라 땀 흘려 자립해서 일해야 하는 땅이었다. 자립인이 되지 않으면 공생인이 아니라 일평생 기생인으로 사는 것이다.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립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자식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듯이 자립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자립에는 먼저, 경제적 자립이 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립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경제력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립은 자신에게 주어진 경제적 여건에 자신을 맞추어 자족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자식을 도와줄 수 있지만,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여건에 자기를 맞추어 갈 때, 그 자식의 삶 속에 창의력과 독창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그 헝그리 정신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도전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이 생기는 것이다. 그 자식들이 새로운 길을 만든다”고 했다. 그리고 이 목사는 “두 번째 자립은 행위의 자립”이라며 “내 자식이 지나간 자리는 다른 사람이 치우지 않도록 내 자식이 행위의 자립이 되게 해야 한다. 행위의 자립인이 될 때, 나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 번째 자립은 의식의 자립 즉, 생각의 자립”이라며 “이 세상에는 진정한 자립에 걸림돌이 되는 그릇된 풍조나 관습이 만연해 있다. 특히 그릇된 체면 문화가 세상을 지배한다. 의식이 자립되지 않아 남의 눈에 종속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남의 눈에 종속되는 의식의 비자유인이 아니라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쪽방에 살아도, 중요한 것은 자신이지 옷이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마지막 네 번째 자립은 영적인 자립”이라며 “주일예배에 참석해 목사님의 설교는 듣는 것은 총론을 듣는 것이다. 그 총론을 바탕으로 매일의 현장의 삶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지를 씨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찾아가야 한다. 이것이 영적 자립이다. 아이들이 식탁에서 이야기 하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자답하면서 영적 자립인이 되게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18일이 수능일이었다. 여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실패할 권리, 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그보다 자립인이 되기에 더 좋은 과정은 없다”며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공생성과 자립성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신다. 미래는 그냥 오지 않는다. 새로운 미래가 오게 하려면 지금부터 무언가를 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공생성과 자립성을 키워 주어야 한다. 미래는 여러분의 식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마무리했다.

세움학당 후기

함께하는 공동체의 저력

이번 주님의교회 세움학당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줌(Zoom)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날 수료식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강사들을 '세계적인 명강사'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 그 소개에 걸맞을 정도로 탁월하고 훌륭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강의내용도 교사의 범위를 넘어서 섬기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되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강사를 모실 수 있었던 것은 비대면의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회를 맡으신 이은미 전도사님의 친근하고 부드러운 진행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기본과정 마지막 강의 '부서운명의 실제'에서는 유유청청 (유아숲, 유소년숲, 청소년숲, 청년숲) 각 숲 소개가 있었습니다. 숲 담당 목사님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비대면 상황을 헤쳐 나가려는 여러 시도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교사를 경험한 적이 없는 저는 교육부서 사정을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되었고, 할 수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토요일에 새벽에는 피택자 교육, 저녁에는 세움학당... 부담이 많아서 중도에 그만둘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에 적응해 가면서 강의를 듣고 있는 100여 명이 훌쩍 넘는 참가자들의 열정으로 함께 끝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는 공동체의 저력을 실감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3기 세움학당에서 제가 경험한 많은 유익을 얻기를 권하며 봅니다.

변준석

회개를 통해 철저히 내려놓고

세움학당 2기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가정의 교사는 자신이 받은 충만한 하나님 사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주위에 흘려보내어 복되고 선하게 만드는 사명을 가졌다고 여겨집니다.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사랑하고 회개를 통해 철저히 내려놓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를 사랑으로 전해야겠습니다.

또한 풍성한 생명과 사랑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온전히 자녀가 되고, 우리를 사랑하여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모든 이를 사랑하는 영성으로 가르침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임하시어 저희의 영을 강하게 만드사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신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한재희

소망이 분명한 사명의식

세움학당 18주(매주 토) 동안의 일정을 허락해주시고 온 가족이 수료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앙교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문성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이 교육을 진행할수록 너무 어깨가 무거워지고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소중하게 전하고 바르게 전해야 하는지... 그러나 그 고민은 마지막 강사이셨던 김화수 담임목사님의 강의 중에서 신앙교사란 '소망이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진 섬김의 신앙교사'이 한 구절로 너무 감동적이고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중 섬김은 교사의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섬기지 못하는 5가지 이유를 말씀하실 때 자존심을 버리고 더욱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담임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주체는 가정이고 신앙의 교사도 가정이라는 말씀에 1년 전부터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예배부터 사명의식을 가지고 가

족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작은 실천을 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18주 동안 세움학당을 진행해주신 이은미 전도사님께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식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영성

처음 세움학당을 접할 때에는 그저 어려울 것만 같고 학교에서 듣는 강의들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토요일 저녁에 편히 쉬고 있을 시간에 세움학당을 듣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거쳐 가는 동안 여러 교수님들과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적이고 교사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 강의들 중에서 제일 감명 깊었던 강의를 떠올려 보자면 장순애 교수님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사 영성 여행'입니다. 처음에 교수님의 강의에 대한 제목을 듣고 '영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는데 '교사영성'제가 이것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불안감이 먼저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들은 후 교사 영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영성이라는 것이 가장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사됨의 원천은 예수님의 은혜요, 은혜 없이 가르치고 은혜가 고갈되면 아이들에게 상처만 남긴다고 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정예은

남은 인생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저희 가정이 18주 동안의 세움학당을 수료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은혜를 베풀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까지 저는 지금 섬기고 있는 정신학원 사역부에서 신앙교사로 섬기고 있는 것이 제가 자원하고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신앙교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태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여러 번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핑계를 대며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섬겨야 할 것 같은 부담감과 부모님이 섬기시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왕 섬기려면 남보다 잘해야 하는데 하는 비교의식 때문에 부르심을 거부하며 살아왔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사랑해 줄 자신도 없고 남보다 낮아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남편 정현식 집사를 보내주셔서 너의 여러 가지 허물까지도 덮어주고 사랑해 주는 헌신적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딸 예은이를 선물로 보내주셔서 낮아질 줄 알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가족을 보내주시면서 신앙교사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남은 인생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학생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신 집중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기쁨으로 섬기고 삶과 가르침이 분리되지 않는 삶으로 본을 보이는 신앙교사로써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명강사님들의 명 강의를 듣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영선

세움학당 후기

세움학당 2기를 수료하며

교회에서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고 또한 아이들이 있어서 토요일 6시~8시 대면 강의는 여건상 어려워서 작년 세움학당 1기는 아쉽지만 신청하지 못했었는데 올해 2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zoom) 강의로 수강할 수 있다는 소식에 남편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저희 부부가 함께 수강할 기회가 없을 듯했거든요. 저희 부부는 현재 유치부 교사로 섬기고 있기도 하지만 몇 년째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정이 신앙의 주체이며 가족이 신앙 교사이다'라는 말씀에 가정 내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의 양육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어떻게 아이들을 올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에 수강하게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역시나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 또한 교사가 지녀야 할 자질 및 자기 관리와 교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기회였으며 특히나 2학기 심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소명으로 깨우치고 영성 훈련을 통해서 교사가 갖춰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18강을 들으면서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교사로 콜링해 주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의마다 수준 높은 강의를 들었지만 그중 인상 깊었던 강의를 꼽자면 세움학당 2기의 첫 시간이었던 장순애 교수님의 강의는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주어+술어를 찾아보면서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정근 목사님께서 강의한 교사의 성경적 자기 관리에서는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 자기 성장, 가족, 일(사역), 쉬(여가) 중에서 개개인의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영역별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으로 두되 크기는 개인별로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억 교수님의 자기를 찾아 떠나는 교사 영성 여행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자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만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칭의의 은총을 받아 스스로 수용하며 개발하도록 이끄는 것이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둔다는 것은 사명이며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마지막 과정이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현재까지도 주변인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세움학당 꼭! 수강하시라고 열혈 홍보 중입니다. 세움학당은 수준 높은 강사진과 함께 교사로서 소명과 사명 그리고 영성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남편과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세움학당을 수강한 토요일 저녁은 해당 강의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항상 자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제로 교사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부부가 함께 대화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부부간 대화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세움학당 만한 것이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세움학당은 교사뿐 아니라 미래세대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들으시기에 아주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훌륭한 강사진분들의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음에 세움학당을 준비하고 진행해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세움학당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잊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염기영

아름다운 부모학교 후기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1년 5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저희 둘 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말씀과 기도로 자라는 어린 시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완전히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배 중 교회 소식을 통해 하반기 '아름다운 부모학교' 교육 안내를 보고 저희 부부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교육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사랑으로 잘 준비해주시고 따뜻하게 인도해주신 이은미 전도사님과 또 함께 도움주신 임익수 장로님, 최봉수 안수집사님 덕에 매우 뜻깊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강의 시작 전부터 책자와 각종 교육자료를 각 가정으로 정성스레 포장하여 보내주시고 사전에 카톡방도 만들어 이름 3행시로 자기소개도 하면서 친밀감을 쌓으며 교육의 첫 시작부터 잘 준비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아직 신혼이라 자녀에 대한 특별한 준비, 교육에 대한 관점 등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전도사님과 장로님, 안수집사님의 자녀 교육에 관한 다양한 실제 사례, 풍부한 교재의 내용과 강의를 통해 준비해주신 교육자료들 그리고 함께 수강한 집사님들과의 나눔을 통해 충만해지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며, 세상이나 나의 관점, 다른 학부모의 관점이 아닌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말과 다그침이 아닌 삶 속 행동으로서 아이들 앞에 서야한다는 것을 깊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 성품, 학업, 교우관계, 진로 등 아이의 인생 전반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 학교, 학원에 교육을 보내고 맡기는 자가 아닌 책임있는 주체로서 모든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서로 세워주고 섬겨주시는 주님의교회 공동체 안에서 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아름다운 부모로서 같이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부모학교 수업을 마칠 때마다 힘차게 외치는 구호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나는 기독교부모입니다, 나는 자녀의 신앙 교사입니다." 주님의교회 안의 많은 부모, 예비부모 성도님들께서도 교육을 통해 기독교부모와 신앙교사로서 준비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유소정

나는
기독교부모입니다
나는 교육의 희망
입니다



마더와이즈 후기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루를

샬롬~ 지난 학기 '지혜' 편이 감사와 소망으로 다가와서 그 내용을 저희 거자씨 식구들과 매주 나눴고, 이번 '회복' 편은 만장일치로 수강을 찬성해주셔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요일을 정해서 릴레이 은혜 나눔을 했습니다. 2조 나눔방은 기도문이나 요약정리, 간증이나 고민, 위로, 찬양, 강의 등이 늘 풍성했습니다. 저는 마더와이즈 2기 회복 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고 중보하며 힘을 주고 위로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은혜로운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함께 힘이 힘이 되지요. 특히 개인적으로는 취미생활 같은 종교생활이 아닌 참 신앙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루틴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차정숙 집사님, 정루미 집사님, 정하선 집사님, 강선화 집사님, 이남경 자매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해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눔방에서 함께 웃고, 울고, 중보하고, 감사하고, 특히 힘든 고민들까지 개별 상담 해주신 우리의 파수꾼 이은미 전도사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김윤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올해 2021년 3월 온라인 마더와이즈 지혜편에서 만난 조원들끼리 다음번 마더와이즈에서도 꼭 보자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회복'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겨운 조원들과 함께 시작한 마더와이즈에서 처음 회복책을 들여다본 제 의식은 대혼란이었습니다. 룻, 베냐민, 레위등 스토리 속 캐릭터들에 대해 제 나뭇의 이미지가 작동하여 매칭하기가 혼란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부를 시아버지가 택한다든지, 어마어마한 신부대금을 치른다든지 그러한 개념도 무척이나 낯설었습니다. 사실 결혼이란 단어 자체에 요즘은 비혼이란 말을 쓰자고 할 정도로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변질된 상태여서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지는 말들을 하는거 같아 마음 한편이 울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원들에게 저의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정말 결혼, 신부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중반쯤 되니 여러 가지 개인적인 집안일로 분주하여 마와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복편을 통하여 무언가를 회복해야 할 텐데하는 조금증이 있었습니다. 남을 의식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힘으로 하려는건가? 아님 원래 이것이 정상인가?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있어 마치 출애굽에서 나오는 기적처럼 이 기간 동안 무언가 기적을 바라고 제 삶속에서 확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나 '신랑 기다리기'편에서 기다림의 두 종류 '기다리는 일'과 '섬기는 일'을 통해 꼭 무엇이 내 심경에서 확 변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기다리기로 다짐했을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성실하게 공부를 못 할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때에 맞게 필요한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꼭 무엇이 눈에 보이게 달라지지 않아도,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리 아니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것을 매시간 알게 해주셨습니다. 회복편을 통해 나의 신부됨에 대해 배웠고, 실제로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러한 말씀교육훈련을 계속 해야 하고, 모이기를 계속해야 하고, 기도를 계속 해야 하고,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마더와이즈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결혼, 성공, 행복등에 대한 고찰을 하며 성경에서의 진짜 결혼, 진짜 성공, 진짜 행복에 대해 마음의 위로와 기쁨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한 것처럼 언젠가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신부로서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훈련을 받겠습니다. 이유진

예수님의 신부로 구별된 존재

마더와이즈 회복편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 택함을 받은 사실을 6주간 말씀과 교제와 조원들과의 나눔을 통해 온전히 알게 하시고 살아낼 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리고 그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책무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첫째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되도록 마음을 열겠습니다. 둘째 차분함과 인내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전신 갑주를 입겠습니다. 셋째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겠습니다. 넷째 섬기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듭난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사야 61:10)

박미영

주님과 동행하며 확신을 가지고

이번 마더와이즈 회복편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생생하게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회복편을 시작할 때 저는 오랫동안 기도해 온 일이 계속 응답되지 않아 낙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회복편 내내 제 능력이나 하는 일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귀하다, 소중하다"고 말씀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구하는 어떤 기도제목 보다 저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끈으로 묶인 '사랑해 4조'조원들과 매주 울고 웃으며 삶을 나누는 시간도 귀했습니다. 함께 기도 했을때 선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서로를 통해 믿음의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은미 전도사님께서 각 조 카카오톡 방에 직접 들어와 주셔서 중보와 사랑의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세심하게 격려해주셨고, 진주현 조장님은 열심으로 섬겨주시는 리더의 본을 보여주셔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직 저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저를 '헬시바'라고 불러주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직장생활에서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생의 엔딩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다가올 일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떠 뵈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인애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마더 와이즈 회복 편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란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인 저를 받아주시며 그 마음을 열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울통불퉁한 제 마음에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저를 받아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가로막는 마음속의 장애물을 모두 무너뜨려주세요.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제 마음에 가득한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백기영

파더와이즈 후기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오랫동안 소모임을 안해봐서인지 무척 낯설고, 긴장이 되었기에, 뭘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가 막막했습니다. 일단은 솔직하게만 저의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했는데,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같은 생각,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사실에 적잖은 위로가 되었고,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모임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신부로서의 우리들”이라는 주제는, 신랑밖에는 못해본 우리 남성들 입장에선 감성적으로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디만, 신앙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최종까지의 큰 히스토리를 모두 비춰준 이 주제를 통해 신앙적으로 매우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불완전한 존재이겠지만, 어쩌면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완전한 존재가 아닐런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친구로서, 또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며, 살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종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파더와이즈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세어보았습니다. ①가르치는 달란트. 30여년간 중고등부 교사를 하며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②힐링의 달란트. 퇴직 즈음에 백석상담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위기청소년 케어와 노인분들 말벗봉사를 하며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③섬기는 달란트. 호스피스 봉사와 요양보호 알바를 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④전도의 달란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축복의 순간들을 80쪽으로 정리해 간증전도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잠실역이나 지하철 승강장에서 휴대용 물티슈와 함께 건네면서 전도했는데, 코로나 후에는 아파트 단지들을 돌며 비대면택배전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⑤중보기도의 달란트. 이런 달란트들을 땅에 파 묻어놓는 미련한 신부가 아니라 열심히 장사해 많은 이윤을 남겨,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설 때 면류관들을 월화수목금금금 번갈아 쓰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이성욱



가정예배학교 후기

절대 늦지 않았다는 마음 주심에 감사

온전하시고 온전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예배학교를 통해 부어주시는 복을 찬양합니다.

늘 가정예배를 소망하며 기대하였지만 부모 된 저의 성경 지식 부족, 예배 인도자로서 영적 준비 부족, 함께 모이기 힘든 분주함을 핑계로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가정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주시고 미음 안에서 절대 늦지 않았다는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저희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 된 제가 먼저 오직 하나님만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자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인도하겠습니다.

가정의 신앙 교사로서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마시며, 기도하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임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이어지도록 애쓰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과 임재를 구합니다. 자녀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가정예배학교를 열어주셔서 감사하며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신 신형섭 교수님과 이은미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장혜정

가정예배의 온전한 회복

우리들은 모두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나도,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엔 정말 다양한 콘텐츠의 인터넷, 미디어, SNS 등의 문화가 ‘스마트’라는 포장으로 나와 가족,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생활 깊숙히 파고 들어와 마음과 생각이 세상속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그저 돈벌어 생활하기 바쁜 일상에만 집중하다보니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하나의 외침뿐으로만 남아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할지,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 과연 무엇을 남겨주려고 노력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그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가정이 신앙교사입니다’라는 교회 표어를 상기해 보며 가정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계획하고 가끔씩 실천하려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였지만 지나친 예배형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나눔과 감사의 자리가 되어야 할 예배가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들로만 채워져갔던 가정예배가 이제는 때와 장소에 맞춘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보며 가정을 말씀가운데 구체적으로 세워 나가는 방법을 경험하고 용기있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준 시간들이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청사진을 그려보고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정이 먼저 말씀을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예배가 먼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한 번 절실하게 깨닫게 된 약속의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먼 훗날 우리 자녀들도 이런 가정예배를 통해 성장해서 부모가 되고 자신들의 가정에서 자신들의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가정에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보다 더욱 감격스런 순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도 외쳐봅니다. ‘사랑해’, ‘괜찮아’, ‘잘했어’ 축복합니다.

최민기

가정예배학교 후기

가정예배를 시작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처음 접한 ‘아름다운 부모학교’를 통해 기독교부모로서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을 배웠다면 ‘가정예배학교’는 이것을 실행해나가는 단계였다. 시간을 내어 강의를 듣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첫 발을 내딛고 나면 이런 강의와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게 된다.

부모가 되면서 삼남매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지 하는 자신감은 나의 자만이였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냥 저냥 성경동화를 읽어주고 이야기를 전하는데 급급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아가 커질수록 이런 시간마저 사라진데다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뭔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에 이 강의를 듣게 되었다.

우선, 신형섭 교수님의 ‘가정예배=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어떤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부담과 고정관념을 깨주셨다. 가정예배의 형식이 아이들에게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매일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예배임을 배웠다.

또한 각 연령기에 따른 신앙의 형태를 보여주셨는데 말씀 가운데 자녀가 다 성장하였다 해도 해당 영적연령기로 돌아가 시작해도 된다는 말씀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시간 주어진 과제, 미션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다른 지체들의 나눔의 모습을 보면서 공감도 하면서 이런 것은 나도 따라 해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요즘 우리 가족은 올 초 유유청청에서 나눠주신 요절카드를 읽고 오늘 하루의 감사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제시해주신 여러 예배의 모델 중 ‘독서 중심가정예배’를 선택하여 삼남매 각각의 신앙 연령에 맞는 책을 읽고 나누고 있다. 또한 기도 역시 나와 자녀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닌 매일의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 아이들의 친구, 선생님, 그리고 주변 학부모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신도시로 이사 오면서 코로나팬데믹 현상까지 되어 내 주변의 많은 학부모들이 예배를 쉬면서 그 자녀들의 믿음도 무너져 가고 있다. 처음에는 각자의 신앙문제라 생각했지만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먼저 기도하고 권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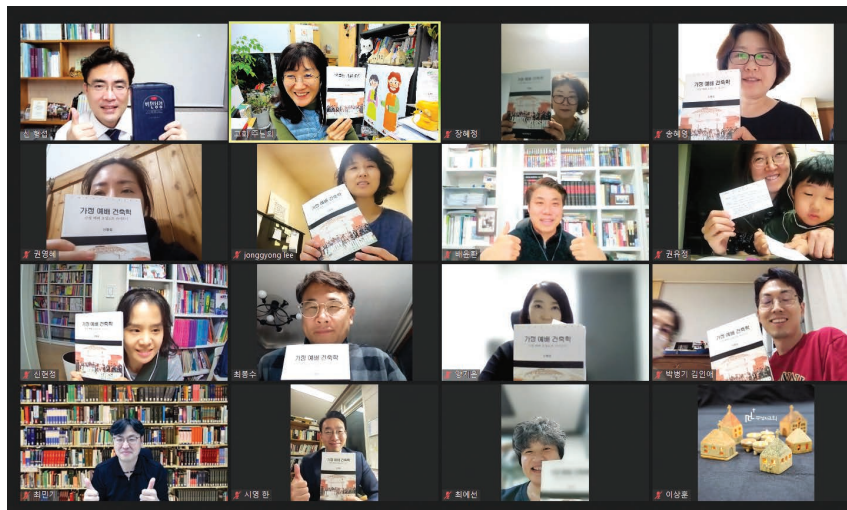
5주간의 과정이 시작은 어려웠지만 하고나니 참 짧았다는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가정예배를 시작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특별히 좋은 지체들의 만남과 나눔, 이은미 전도사님의 격려가 이 과정을 마치는데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린다. 역시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부어주시니 말이다.

권영혜

짧았지만 강렬했던 훈육 기간

7살 5살 아들들을 키우는 워킹맘에게 하루는 왜 이리 짧은 것일까요? 아직까지도 요령이 없어 그런지 정신없이 바쁘게만 지나갑니다. 그래도 아이들과 집에서 예배드리고, 겨자씨도 참석하고, 아이들을 위한 어와나도 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가정예배는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고, 생활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언젠간 할 수 있을지도 모를 막연한 위시 리스트(wish list)같은 것이었고, 가정예배학교도 ‘나중을 위해 들어두자’라는 생각으로 신청을 결심했었습니다. 그런 제게 강의 첫 날, ‘가정예배는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이라는 목사님의 단호한 말씀은 제가 외면했던 불편한 진실을 마주보게 해주었습니다.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망설임없이 제일 먼저 미루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었고, 주님의 일에 있어서만은 한없이 나태하고 게을렀던 저였습니다. 가정예배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첫날 강의가 끝난 직후 바로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리 준비는 못했지만 유아숲에서 제공하는 말씀달력 일정이 있었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강의를 중간중간 같이 들어서인지 꽤나 집중해주었지만 둘째는 자기 전에 에너지를 빼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래도 기도 마지막에 아멘은 해주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가정예배는 ing 중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하루의 짧은 시간을 매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도 있지만, 서로 자기 얘기가 하고 싶어 삼천포로 빠질 때도 있고, 첫째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진땀을 빼기도 하고,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예배 도중 화를 내는 날도 있습니다. 그마저도 안 하고 그냥 잠 자리에 들 때도 있고요. 그래도 점점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알려주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옳은 것을 선택했을 때 마음껏 칭찬해주신 5주간의 짧았지만 강렬했던 훈육 기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집을 세우는데 더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권유정



사임 교역자 인사

주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며

동트기 전 새벽, 정신여중고 교문을 넘어서서 들어간 김 마리아 회관. 로비에서 보았던 크리스마스 모자 트리. 첫 부임 날 풍경이 아직도 생생한데, 헤어짐이라니... 이별은 언제나 낯설고 어렵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물리적 거리가 마음의 거리를 멀게 하지는 못했나 봅니다. 좋은 분들과 진실로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 일에 동역할 수 있으며 참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서예림 목사 / 유아숲 영아부



제게 주신 더 큰 사랑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상황에서 열심을 다했지만, 어린이들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던 첫 마음은 잘 지켜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떠납니다. 제가 드린 사랑보다 제게 주신 사랑이 더 크다는 것ですよ. 그 사랑 기억하며 주님의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심다영 전도사 / 유소년부 유년부, 어와나 스팅스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교회

먼저, 주님의교회를 섬기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온라인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었고, 교회로 오시는 성도님들을 가까이서 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이웃에게 칭찬 받는 교회가 되길 중보하겠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매력적인 사람, 그리고 목회자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보라 전도사 / 유소년부 소년부, 어와나 T&T



첫 사역지의 기억과 아쉬움

2018년 12월 첫째 주 주님의교회에 온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떠날 순간이 오니 많이 섭섭하고 아쉽습니다. 지난 3년간 성도님들과 교역자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떠납니다. 저의 첫 사역지였고 처음으로 함께한 분들이기에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울 것 같습니다. 헤어짐은 언제나 아쉽지만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믿습니다. 주님의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목회자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호영 전도사 / 유소년부 소년부

목회 칼럼

방탄소년단(BTS) 노래를 통해 바라본 시대상과 기독교적 성찰

기독교는 자기 성찰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인은 죄인된 자신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혹독한 자기 성찰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하다’ 고 말하는

신적 은혜와 사랑인 것이다.

밀레니얼에 이르는 바람 : 자기애(自己愛) 열풍

2018년 9월 24일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아동기금의 청년 어젠다 발표 행사에서 방탄소년단이 던진 메시지다.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틀에 끼워 맞추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Speak yourself)”는 이 메시지에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열광했다. 오늘날 밀레니얼 세대가 자기애의 메시지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존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불안함에 비례하는 인정애의 욕구는 자발적인 자기소외를 부추기기도 한다.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삶에서 자신을 소외시키는 문제는 오래된 주제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스펙 쌓기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며 살아왔다.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삶을 투영해온 것이다. 방탄소년단은 <Fake Love>에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과 내적 갈등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널 위해서라면 난 슬퍼도 기쁜 척 할 수가 있었어.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 할 수가 있었어.
 사랑이 사랑만으로 완벽하길 내 모든 약점들은 다 숨겨지길
 이뤄지지 않는 꿈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키웠어.
 I'm so sick of this Fake Love.....
 나를 봐 나조차도 버린 나 (Oh no)
 너조차 이해할 수 없는 나
 낯설다하네 니가 좋아하던 나로 변한 내가
 아니라하네 예전에 니가 잘 알고 있던 내가
 아니긴 뭐가 아냐 난 눈 멀었어
 사랑은 뭐가 사랑 it's all fake love.....

SNS든 뭐든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과시하는 것에 익숙해져만 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행복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강박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행복하다”라는 식의 SNS, 조증 환자들처럼 보이는 종교인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 밀레니엄 세대들! 그러나 삶의 음표에 가끔은 부점을 찍어도 그 노래가 엉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사랑받기’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나의 소관이 아닌 것으로부터 존재감을 찾으려는 노력은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올 뿐이다.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선택하는 것은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닌 타인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과 고독을 남긴다.

평범한 사람은 사회가 기대하는 틀에 맞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방탄소년단의 메시지는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많은 공감과 위로를

전해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자기애’적 인본주의 메시지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는 차별성을 가진다. 성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떤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가? 기독교는 자기 성찰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인은 죄인된 자신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혹독한 자기 성찰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말하는 신적 은혜와 사랑인 것이다. ‘자기애’적 인본주의 메시지는 인간에게 가장 쾌락을 주고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기를 요청한다. ‘자기애’적 인본주의 메시지를 가진 니체(F. W. Nietzsche)의 초인사상, 헤세(H. Hesse)의 소설 ‘데미안’적 세계관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소유형 인간 vs 존재형 인간

예수는 소유형 인간으로 묘사되는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자신을 따르라고 요구하셨다.(마19:16-25 참고) 이 청년은 스스로 제일 잘 나가는 인생이라 여기며 목적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무엇인가 부족한 결핍의 인생이다. 마치 종교적인 강박증에 빠진 사람처럼 예수 앞에 나아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도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예수가 그에게 원한 것은 물질과 직업, 지위 같은 것들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한다. 사실 예수는 그 청년의 존재(Being)를 찾고 계셨다. 기독교는 사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인가를 했는가 하는 행위의 문제보다는 존재론적으로 인간을 접근하고 있다. 구원은 신적 은혜로부터 주어지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은 성서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처럼 늘 공허함을 가지며 결핍으로 살아갈 뿐이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이 쓴 <소유나 존재냐>에 나오는 두 사람의 유형 중에 소유형의 인간(having mode)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 몰두하며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이란 다른 대상에서의 삶의 안정감을 찾으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분명 방탄소년단의 노래에는 이 시대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선명하게 던지는 청춘의 정신과 희망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그들의 신드롬을 무조건적으로 예찬하기보다 이 세대에 파급되고 있는 ‘자기애’적 인본주의 메시지를 한 번쯤은 의심해보는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이종성 목사



새로 안수받은 항존직을 소개합니다

2021년 11월 28일 3부 예배 때 항존직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항존직 선거는 예년의 경우 보통 가을에 이루어지고 소정의 피택자 교육 과정을 거친 후 이듬해 창립기념주일에 안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2020년 항존직 선거가 연기되어, 지난 5월의 투표를 통해 피택자가 선정되었고, 지난 주일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임직되어 더 큰 일을 감당하시게 될 항존직 여러분을 소감과 함께 소개합니다.(가나다 순) **함글함글**

■ 장로



변춘석 장로

장로의 직분은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직분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의 화목을 위해 힘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신앙 인격을 갖추어 가고 가법치 않은 언행으로 하나님께 묻고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은퇴할 때에는 이 직분을 행복하게 감당했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임익수 장로

피택 되고 첫 주일에배에 기도 가운데 “지금까지 너를 위하여 말하고 살았는데,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37년간 세일즈로 달란트를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셨습니다. 순간 감사와 죄송함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주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며 본이 되는 장로로 살아가겠습니다.

■ 안수집사



고승철 안수집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직을 받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겠습니다.



김관민 안수집사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 만에 안수 집사로서 직분을 맡게 되어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코람테오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청년 시절의 다짐이 다시금 떠오르며 신실한 삶을 살아오지 못했기에 주님께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낮은 데서 섬기기를 힘쓰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나온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류승태 안수집사

임직자 교육을 받는 6개월의 기간은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덩달하게 신앙 생활을 하던 모습을 돌아보며 임직자의 지녀야 할 본분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세웠던 집사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노력하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박경준 안수집사

안수집사 교육을 마치고 나서 처음 교육을 시작할 때 가졌던 고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가 과연 안수집사로서 자격이 있을까? 교육기간은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점검해 보고 자문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불확실하면 불확실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박웅좌 안수집사

자격 없고 먼지 같은 저를 지명하고 피택하여 주신 교인들과 여호와 하나님께 작은 손길의 아낌없는 사역으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선출 과정과 교육 과정을 통해 주님은 가까이 계시어서 말씀 묵상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나 자신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일상에서 지키고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꾼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재민 안수집사

제가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완전한 계획을 제가 깨닫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등불 삼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나만의 지식, 논리, 방법을 뒤로하고 주님의 부름에 따라왔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겸손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박창두 안수집사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에게 항존직을 허락하신 성도님들과 이 길을 인도하시고 세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직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교회 창립정신과 담임목사님의 비전을 항상 생각하며 낮은 자세로 겸손히 섬김과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를 기도드립니다.



서병운 안수집사

주님의 은혜로 22세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후,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왔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이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교회 안수집사로 임직을 하면서 그동안 소홀히 하곤 했던 예배와 교제와 봉사와 섬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로 다짐합니다.



손준웅 안수집사

마흔이 넘어 교회에 다닌 저는 피택 교육을 받는 동안 신앙을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마치면서 예수님과 만남과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이 저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축복의 여정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 겸손히 순종하며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송재승 안수집사

할렐루야! 먼저 부족한 제가 안수집사로 교회를 섬기는 복을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이요 빛이신 주님, 제가 주님의 빛을 받은 자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준비된 자로 임직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해주신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기도와 사랑으로 격려해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인모 안수집사

부족한 종을 안수집사로 피택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피택 전과 피택 후가 달라져야 함을 무엇보다 강한 책임감으로 느낍니다. 말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충성스럽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사랑과 온유로 모든 분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축복의 통로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윤승진 안수집사

누구나 그러하듯이, 익숙한 일상에서 변화는 힘이 들지만, 그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 발전하게 됩니다. 주님의교회 안수집사로 피택되어 지난 6개월 동안 피택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지난날의 나태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기도와 찬양으로 단단히 무장한 영적 용사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정금 같이 단련 해주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광우 안수집사

피택자로 준비가 부족한 마음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택자 교육 과정을 통해 더 깊은 묵상과 믿음으로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임직자로서 말씀 알기에 힘쓰며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성호 안수집사

모든 것에서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저 자신에게 이번 피택자 교육 과정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온전히 교육 훈련에 집중하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의문과 염려에 심적 부담을 안은 채 부족을 조금이라도 채우자는 심정으로 교육 훈련에 적극 임하였습니다. 임직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자세 등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정우 안수집사

하나님의 은혜로 아프거나 죽지도 말자는 구호 아래 피택자 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선택하셔서 풀무불에 담금질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려 준비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부름에 나 자신과 나의 두려움을 떠나 주님 쪽으로 한걸음씩 옮겨가도록 섬김의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혁 안수집사

먼저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과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여 두렵지만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는 말씀에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배움의 자세로 겸손히 섬기며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조상철 안수집사

일찍이 선조들이 처음 가졌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제 마음 속에는 신앙의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택자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제 마음 속 트라우마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신 사명을 좇아 믿음의 가문을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조세종 안수집사

너무 준비 없이 임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고 또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고 맡깁니다. 교육을 담당해주신 목사님들과 같이 큐티 나눔을 해주신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권사



강경희 권사

부족한 저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직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피택자 교육 훈련을 받으며 감사함이 참 많았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감사함을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임 권사

부족한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직분을 말씀에 순종하며 늘 기도 힘써 섬기는 자세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길 다짐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외적인 형식과 행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가치가 중요함을 느끼며 오직 주를 위해 나의 삶을 구별하며 참된 주님의 자녀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고명숙 권사

부족한 저를 주님의교회 권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29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더십과 큐티 나눔과 실제, 성경 읽기, 독후감 쓰기 등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 이번 피택자 교육 과정은 저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직분자로 새롭게 준비되는 귀한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권진영 권사

부족한 저를 택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피택 교육을 받기 전에는 나의 능력이 부족하여 염려되기도 하였지만 이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세가 더 중요하며 직분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섬기도록 할 것입니다.



김미선 권사

자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자리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겸손, 온유, 사랑으로 향기를 널리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때론 강하고 담대하며 때론 온유와 사랑과 겸손함으로 주님의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직하고 성실한 청지기로서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길 소원합니다.



김미성 권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려 합니다. 주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도 머물기를 주의 손이 닿는 곳에 나의 손도 보태지기를 소망하며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삶을 단순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자 권사

임직자 훈련을 받으면서 주어진 직분에 대해 생각하니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세워 주셨으니 주님 배후신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며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부여 주실 것이라 믿고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김영희 권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권사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훈련 받게 하셔서 임직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맡은 바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일에 성실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힘써 섬기는 임직자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권사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혜령 권사

부족한 저에게 권사의 직분을 허락하셔서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섬길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서재화 권사

부족한 저를 주의 일꾼으로 택하시고 교육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피택자 교육 기간에 긴장되고 두려웠지만 직분의 의미를 생각하고 저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두렵지만 세세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겠습니다.



육영주 권사

할렐루야! 권사라는 직분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많은 저를 권사로 선택해주신 성도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권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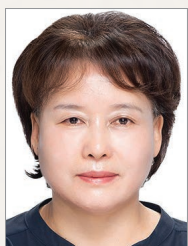
이금옥 권사

부족한 저에게 거룩한 직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달 동안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심은 큰 은혜였습니다.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충성되어 최선을 다하는 기쁨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다짐합니다.



이민숙 권사

주님의교회에서 귀한 직분으로 섬기게 되어 감동적이고 주님께 영광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택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소통하는 것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숙지하여 기도하는 리더의 삶을 살아 충성된 일꾼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믿음과 기쁨으로 신앙의 깊이를 채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왕희 권사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지탄을 받고, 믿는 자가 줄어드는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한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오직 말씀 묵상과 기도만이 위기와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길임을 느낍니다. 부족한 제게 직분 주심을 감사드리며,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곳에 함께 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춘희 권사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교회 공동체를 성실하게 섬기겠습니다.



임미희 권사

직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에 힘입어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조은영 권사

믿지 않는 가정에서 주의 자녀되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주의 전 안에 머물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태도 없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더 늦기 전에 주께 바로 서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음성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신혜 권사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떨리고 두려웠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도 같은 직분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담임목사님, 부목사님 및 피택자 38명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2 회

	함	글	함	글				
	신	춘	문	예		공	모	

● 공모 부문

- 시 | 3편
- 수필 | 200자 원고지 기준 20매 내외 2편
- 간증 | 200자 원고지 기준 20매 내외 2편

● 접수 마감

2021.12.15(수) 24:00

● 당선작 발표

- 각 부문별 1명을 당선자로 선정하여 2022년 함글함글 신년특집호에 발표합니다.

● 보낼 곳

- hamletter@daum.net
- 메일 제목에 <함글함글 신춘문에 응모작품>이라고 써 주세요.

● 응모 방법

- 응모작품은 기존에 발표된 일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작품은 PDF 파일로 보내주시고, 작품 맨 끝부분에 **이름, 생년월일, 직분, 연락처**를 명시해 주세요.
- 아래아 한글이나 워드로 작업하신 파일은 PDF 파일로 저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글함글에서 제2회 함글함글 신춘문예를 공모합니다.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상정되는 개인 미디어 시대, 모든 생활과 소통은 영상과 같은 감각적 미디어와 카톡 식의 일회성 텍스트에 담겨질 뿐, 단어 하나의 선택에도 뜻을 들이고, 선택 하나를 찍는 데에도 고민하던 깊이 있는 문학의 공간은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문학 청년들의 산실이었던 문예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의 소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랜 묵상과 예수님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 그리고 말씀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데 있다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표현의 언어를 정갈하게 버리는 일일 것입니다. 함글함글에서는 주님이 주신 복사는 교회 주님의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소중한 맥락 가운데, 깊이있는 묵상과 창조적 상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펼쳐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글함글 신춘문예'를 공모합니다.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교회일정

12/11(토)	자녀축복새벽기도회
12/19(주일)	성탄가족예배
12/25(토)	성탄절, 유아세례

알립니다

1. 유아세례교육

대상 :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세례교인의
24개월 미만 아기

신청: 12/11(토)까지

교육: 12/12,19(주일), 온라인 교육(2회)

유아세례예식: 12/25(성탄예배) 2부 예배시

문의: 이창수 안수집사(010.5472.7059)

2. 2021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대림절'

주제: 작게, 낮게, 아래로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① 대림절 묵상 : 영상으로 함께 만나는 성탄의 의미

② 대림절 주간활동 :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 3주간, 활동 내용이 담긴 엽서를 나눠드립니다.

▶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대림절 말씀암송 : 누가복음 2장 14절

함글함글,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의교회 신문 <함글함글>은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값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간증, 사역후기, 교회 안의 미담이나 칼럼, 기행문, 단상 등 주님의교회 공동체와 같이 나누면 좋은 어떤 글이라도 보내시면 됩니다. 이 메일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지면 사정에 맞추어 게재합니다.

함글함글

2021 항존직 선거 시행공고

● 항존직 선거 일정

- 항존직 등 종직 직분자의 추천 투표 : 2022.1.16(주일) 예정
- 당회의 공천 투표 : 2022.2.20(주일) 예정
- 공동의회 선거 : 1차선거 2022.3.27(주일), 2차선거 2022.4.3(주일) 예정
- * COVID-19 등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변동 시 재공지 예정

● 항존직 선출인원 : 장로 10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20명

● 항존직으로 피택받을 수 있는 성도의 자격

구분	세례,입교 (선거일 기준)	등록 (선거일 기준)	연령 (선거년도말기준)	자격 및 성품
장로	7년	10년	만40세~65세 미만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이 있는 자
안수집사	5년	5년	만35세~70세 미만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
권사	5년	5년	만35세~70세 미만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 있는 자

✓ 후보자의 추천 및 공천

- ① 추천투표에 참여하는 종직 직분자 :
- 항존직(은퇴장로, 사임장로, 시무·은퇴 안수집사, 시무·은퇴권사, 협동장로)
 - 거저씨 인도자
 - 제작부서 부서장

② 공천투표 : 당회원

✓ 공동의회 선거

- ① 선거 참여 자격
- 선거시행공고일 기준 등록 1년 이상 된 자로서 현재 주님의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
 - 선거시행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세례, 입교 교인
- ② 피택(선출)기준
- 장로 : 총 유효 투표자의 2/3이상 득표자
 - 안수집사, 권사 : 총 유효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

2021년 12월 5일
주님의교회 선거관리 위원회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심동욱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 메일 : hamletter@daum.net

